트레이드 렌즈
TRADE LENS

투자에 초점을 맞추다.

MACRO INSIGHT / No.12

2026년 10월 PPI · 원가 전가 · 금리·기업이익

미국 생산자물가 6.5%의 충격

인플레이션 재가속이 증시를 압박하는 구조

총지수·기조물가·가격 전가·할인율로 해석하는 주식시장의 부담

6.5%
10월 최종수요 PPI · 전년비 [1]

0.3%
10월 최종수요 PPI · 전월비 [1]

0.5%
식품·에너지·유통 제외 · 전월비 [1]

물가의 속도는 낮아졌다.
증시의 부담은 가격 전가와 금리 경로에 남는다.

단일 발표의 등락을 넘어, 원가를 흡수하는 기업과 가격·현금흐름을 방어하는 기업의 차이를 분석한다.

분석 기준일 2026.11.14

TRADELENS.KR

거시경제·가격 전가·기업이익·금리 분석

01 / RESEARCH VIEW

증시를 압박하는 것은 가격 전가와 할인율이다

핵심 질문: 전년비 6.5%와 전월비 둔화가 함께 나타날 때, 무엇으로 시장의 위험을 판단해야 하는가?

TradeLens 핵심 판단

기본 전망은 높은 물가 압력의 지속과 기업별 차별화다. 10월 총지수의 월간 둔화만으로 금리 부담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모든 기업의 비용과 이익이 같은 비율로 악화되는 것도 아니다. 가격 전가력·생산성·자금조달 구조가 이익 방어력을 가른다. [1] [9] [10]

관측된 사실	해석	현재 판단을 바꿀 증거
전년비 6.5% 전월비 0.3%	1년의 누적 압력은 커졌지만 최근 한 달의 상승 속도는 낮아졌다.	여러 달에 걸친 월간 상승률의 동반 안정
식품·에너지·유통 제외 전월비 0.5%	에너지 둔화와 유통마진 축소가 전체 물가 압력을 모두 설명하지 못한다.	비에너지 상품·서비스의 지속적 둔화
정책금리 3.75~4.00% 10년 국채 5.15%	단기 정책금리와 장기 할인율은 서로 다른 경로로 기업을 제약한다.	물가 안정과 실질 현금창출 개선의 동행

PPI는 10월, 정책금리는 10월 28일 결정, 국채는 11월 13일 일별 파 수익률이다. 서로 다른 시점을 구분한다. [1] [9] [12]

압력은 어디에서 생기나

전가하지 못한 비용은 마진을 줄인다. 전가한 가격이 소비자 물가에 남으면 긴축 부담이 지속될 수 있다.

누가 더 잘 견디나

반복 수요와 재계약 가격 결정권, 짧은 회수기간, 낮은 차환 부담을 함께 가진 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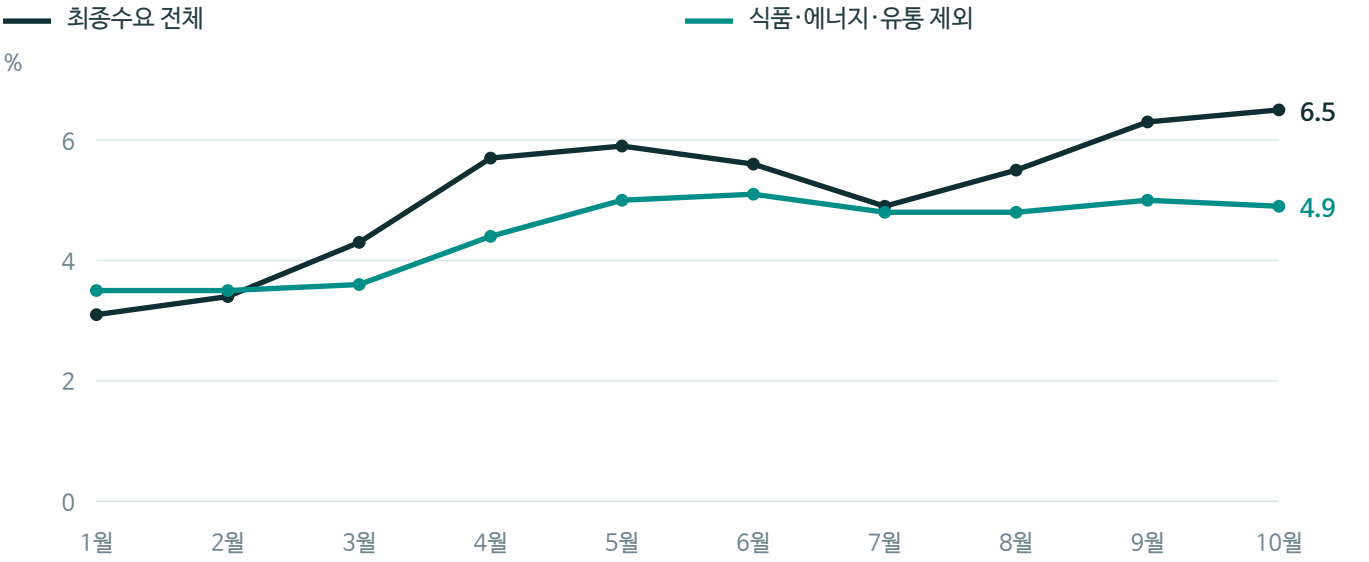
독자에게 남길 기준

PPI 숫자 → 기업별 판매가격·투입비 → 실제 이익과 현금 → 정책·시장금리 → 평가배수. 이 연결을 분리해 판단한다.

02 / INFLATION BASELINE

6.5%는 1년 변화, 0.3%는 한 달의 속도다

2026년 최종수요 PPI의 전년비 경로. 비교 기간과 제외 항목을 먼저 고정한다.



단위: 전년 동월 대비 %, 비계절조정. 11월 13일 발표의 Table A 기준. 이후 개정 가능. [1]

2026년 10월 지표	전월비 · 계절조정	전년비 · 비계절조정
최종수요 전체	+0.3%	+6.5%
식품·에너지 제외	+0.3%	+5.0%
식품·에너지·유통서비스 제외	+0.5%	+4.9%

총지수의 연간 상승률은 9월 6.3%에서 6.5%로 높아졌다. 반면 식품·에너지·유통을 제외한 연간 상승률은 5.0%에서 4.9%로 낮아졌다. 따라서 이번 발표를 모든 물가의 동시 가속으로 해석하면, 재가속과 높은 수준의 지속을 혼동하게 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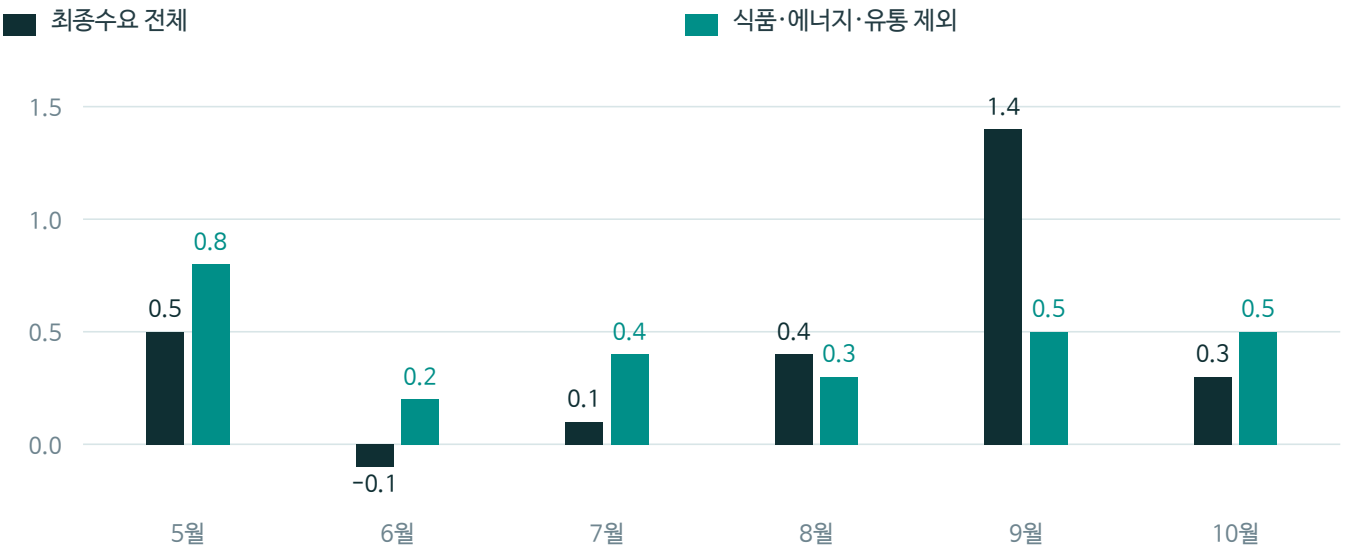
분석의 초점

증시에 더 중요한 질문은 지난 1년의 누적 상승률이 얼마나 큰지가 아니라, 앞으로의 비용·판매가격·금리 경로가 얼마나 오래 높은 수준에 머무는가다.

03 / MOMENTUM TEST

재가속과 고착을 구분해야 금리 전망이 보인다

월간 관측값을 복리로 연결하되, 연율 환산값을 앞으로 1년의 예측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단위: 전월 대비 %, 계절조정. 월간 변화율은 2026년 11월 발표 기준. [2]

3개월 관측 구간	총지수 연율 환산	식품·에너지·유통 제외
2026년 5~7월	약 2.01%	약 5.74%
2026년 8~10월	약 8.72%	약 5.33%

산식: $\{(1+m1)\times(1+m2)\times(1+m3)\}^4-1$. 공표된 소수 첫째 자리 월간 변화율로 계산한 근사치이며 실제 연간 상승률이 아니다. [2]

총지수: 9월 급등의 영향

8~10월 연율 환산에는 9월 +1.4%가 크게 작용한다. 10월의 둔화가 이 누적 상승을 즉시 지우지는 않는다.

기조지수: 고착에 더 가까움

같은 3개월 환산치는 5.74%에서 5.33%로 낮아졌다. 가속을 단정하기보다 높은 상승 속도의 지속을 경계할 근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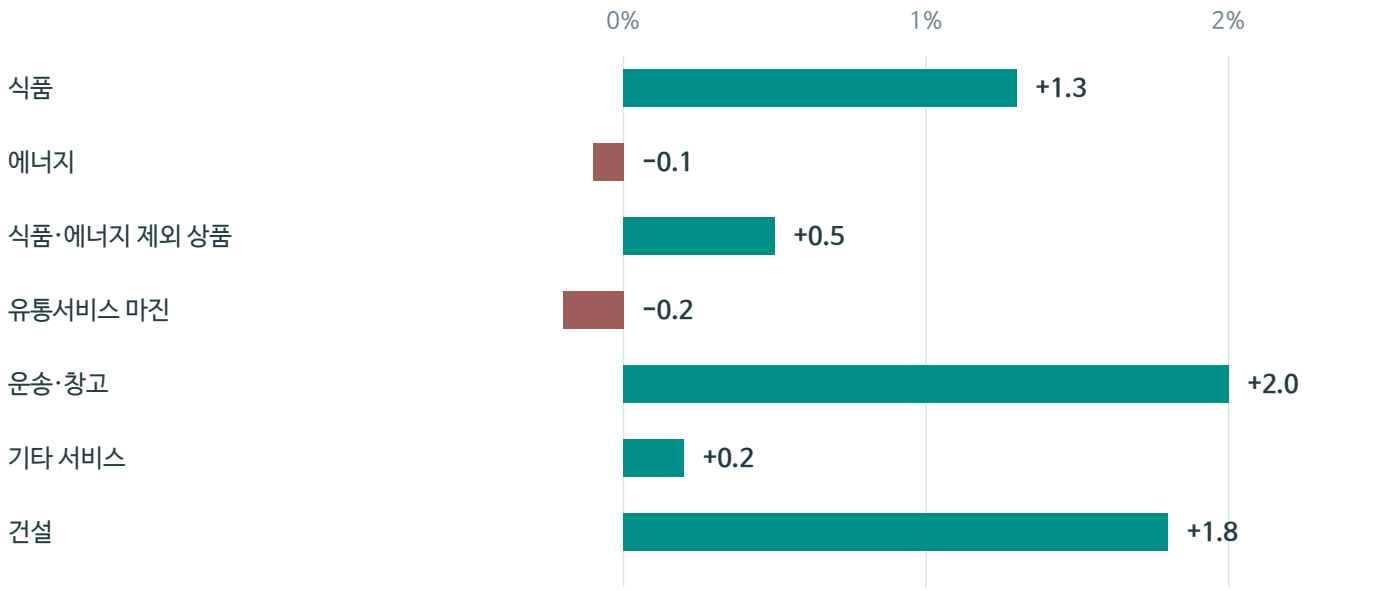
TradeLens 판단

10월의 신호는 “한 달 급등이 더 커졌다”가 아니다. 급등은 진정됐지만 광범위한 가격 압력이 충분히 낮아졌다는 증거도 아직 약하다는 것이다.

04 / COMPOSITION & BOTTLENECKS

에너지 둔화 뒤에도 운송·상품 압력은 남았다

같은 10월 전월비를 비교한다. 품목별 변화율은 총지수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다.



계절조정, %. 기타 서비스는 유통·운송·창고 제외. 집계별 가중치가 달라 크기만으로 기여도를 비교할 수 없다. [1] [3]

교차해서 볼 가격	10월 전월비	해석
경유	−7.9%	일부 연료가격의 하락
화물 트럭 운송	+3.9%	운송서비스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음
기초 유기화학제품	+3.9%	비에너지 생산품에도 남아 있는 가격 압력

운송료는 연료뿐 아니라 인건비·차량·보험·가용 공급과 계약 시점의 영향을 받는다. 관측된 경유와 운송료의 차이는 에너지 둔화가 곧바로 모든 공급망 비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신호다. 다만 이 자료만으로 각 원인의 기여율까지 나눌 수는 없다. [1] [3]

경제적 이익의 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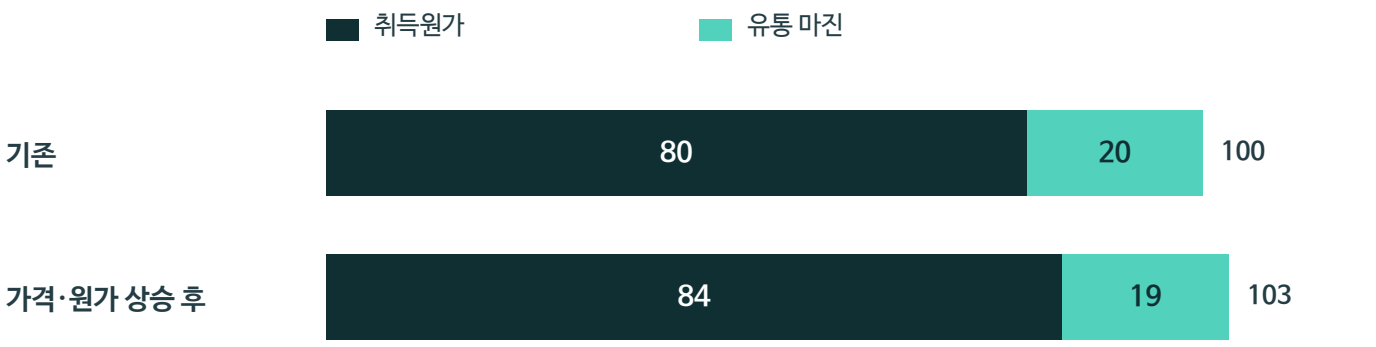
생산자의 판매가격 상승은 구매기업의 투입비 상승일 수 있다. 업종 전체를 한쪽의 수혜 또는 피해로 묶기보다, 공급계약에서 가격 변경권을 가진 쪽을 확인해야 한다.

05 / DISTRIBUTION MARGINS

유통마진 하락은 소비자가격 하락과 다르다

유통 PPI는 판매가격 자체가 아니라, 판매가격에서 재취득가격을 뺀 마진의 변화를 측정한다. [4]

10월 최종수요 유통서비스 지수는 0.2% 하락했다. 이는 유통업 전체의 영업이익률이 0.2%포인트 하락했다는 뜻도, 소비자의 구매가격이 0.2% 하락했다는 뜻도 아니다. [1] [4]



설명용 단위당 금액. 판매가격 100→103, 상품 재취득원가 80→84. 인건비·임차료·금융비용·판매량은 제외한다.

항목	변화	결과
소비자에게 받는 판매가격	100 → 103	+3.0%
다시 들여오는 상품 원가	80 → 84	+5.0%
유통서비스의 단위당 마진	20 → 19	-5.0%

총지수 완화의 다른 얼굴

유통업자가 비용 일부를 흡수하면 총지수는 낮아져도 해당 기업의 단위당 수익은 줄 수 있다.

기업분석에 필요한 추가 정보

매입·판매 시점, 재고평가, 임차료와 인건비를 함께 봐야 유통 마진이 영업이익으로 얼마나 남는지 알 수 있다.

TradeLens 판단

전체 PPI의 둔화가 기업이익에 일괄적인 호재는 아니다. 비용 하락으로 생긴 둔화인지, 유통업체의 마진 흡수로 생긴 둔화인지에 따라 이익의 방향이 달라진다.

06 / PPI → CPI → PCE

생산자물가는 소비자물가의 복사본이 아니다

대상·가격·가중치가 다른 지수를 연결할 때는 개별 구성항목과 시차를 사용한다.

지표	무엇을 측정하나	다른 지표로 곧바로 옮길 수 없는 이유
PPI	미국 내 생산자가 받는 판매가격	수출·정부·투자 수요도 포함. 수입품·자가주거비와 범위가 다름.
CPI	도시 가계가 직접 지불하는 소비가격	수입품과 주거비를 포함. 유통비·세금의 처리도 PPI와 다름.
PCE 물가	가계 소비 및 가계를 대신한 지출의 가격	CPI·PPI 등을 구성항목별로 활용하지만 대상과 가중치가 다름.

정의와 측정 범위는 BLS 비교자료와 BEA 방법론 기준. PPI와 CPI의 연간 상승률 차이를 기업 마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8] [14]

최근 공표치	전체	식품·에너지 제외
10월 CPI · 전월비	+0.4%	+0.3%
9월 PCE 물가 · 전년비	+3.6%	+3.1%

2026년 10월 CPI의 전년비는 비교 대상인 2025년 10월 자료가 없는 주요 계열에서 공표되지 않았다. 다른 추정치를 공식 CPI 전년비로 대체하지 않는다. 9월 PCE는 10월 PPI보다 한 달 이전의 소비물가라는 점도 유지한다. [5] [6] [7]

다음 확인의 핵심

PPI 총지수 하나로 다음 PCE를 환산하기보다 의료·금융 등 관련 구성항목과 소비자 가격을 연결해야 한다. 정책 판단에는 그 결과의 지속성이 중요하다.

07 / DEMAND & PRODUCTIVITY

가격 압력은 강하지만 실물 신호는 혼합돼 있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수요와 비용을 흡수할 생산성은 서로 다른 안전판이다.

공표 지표	수치·기간	물가·이익에 주는 의미
비농업 기업 노동생산성	3분기 +3.6% 전기비 연율	단위 산출에 필요한 노동비용 압력을 완충
비농업 기업 단위노동비용	3분기 −0.7%·전기비 연율 전년 동기비 +2.4%	최근 분기 완화와 연간 증가가 함께 존재
실질 가처분소득	9월 −0.3% 전월비	가계의 가격 인상 수용력에 제약
실질 개인소비	9월 +0.0% 전월비·반올림	명목 소비 증가가 실질 수요 확대를 뜻하지 않음
비농업 고용·실업률	10월 +16.5만 명 실업률 4.1%	즉각적인 노동시장 붕괴를 전제로 하기 어려움

생산성·비용은 11월 5일 잠정치, 소득·소비는 10월 29일 발표, 고용은 11월 6일 발표. 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7] [10] [11]

물가 압박이 완화될 경로

생산성 개선이 단위비용을 낮추고 원자재·물류 가격이 안정되면, 가격을 크게 올리지 않고도 마진을 지킬 여지가 생긴다.

마진 압박이 커질 경로

실질 구매력이 약한데 투입비가 계속 오르면 가격 전가가 판매량 감소를 부른다. 고용이 버틴다는 사실만으로 이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기본 전망의 균형

현재 자료는 즉각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의 자동 안정 어느 쪽도 보장하지 않는다. 공급 측 효율 개선이 실제 가격·실질소득으로 확산되는지가 분기점이다.

08 / POLICY REACTION

연준의 선택은 한 번의 PPI가 아니라 지속성이다

10월 28일 정책 결정은 11월 13일 PPI 발표보다 앞선 사건이다.

확인된 정책 기준

연준은 10월 28일 정책금리를 3.75~4.00%로 동결했다. 성명은 높은 물가와 견조한 지출·투자를 함께 언급했다. 반대 위원 2명은 0.25%포인트 인상을 선호했다. 이는 인상 위험을 보여주지만 다음 회의의 결정은 아니다. [9]

01 **가격의 폭** 에너지 밖 확산 > 02 **지속 기간** 월간 추세 반복 > 03 **수요·기대** 소비·고용·기대 > 04 **정책 판단** 긴축 유지·조정

후속 전개	정책 압력의 방향	증시에서 중요한 변화
비에너지 물가·기대 상승 지속	긴축 장기화·추가 인상 위험 확대	차환비용과 장기 현금흐름 할인 부담
근원 물가 둔화·수요 유지	정책 불확실성 완화 가능	이익을 유지하면서 할인율 압력이 줄어드는 조합
수요·고용 급격한 약화	경기 안정 필요성 확대	금리 하락보다 이익 하향이 더 클 수도 있음

긴축은 공식 금리 인상만으로 측정하지 않는다. 높은 금리가 더 오래 유지되거나 신용 스프레드가 넓어져도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은 커질 수 있다. 반대로 물가 둔화와 실적 방어가 함께 나타나면 가격 부담이 주가 압박으로 전환되는 연결은 약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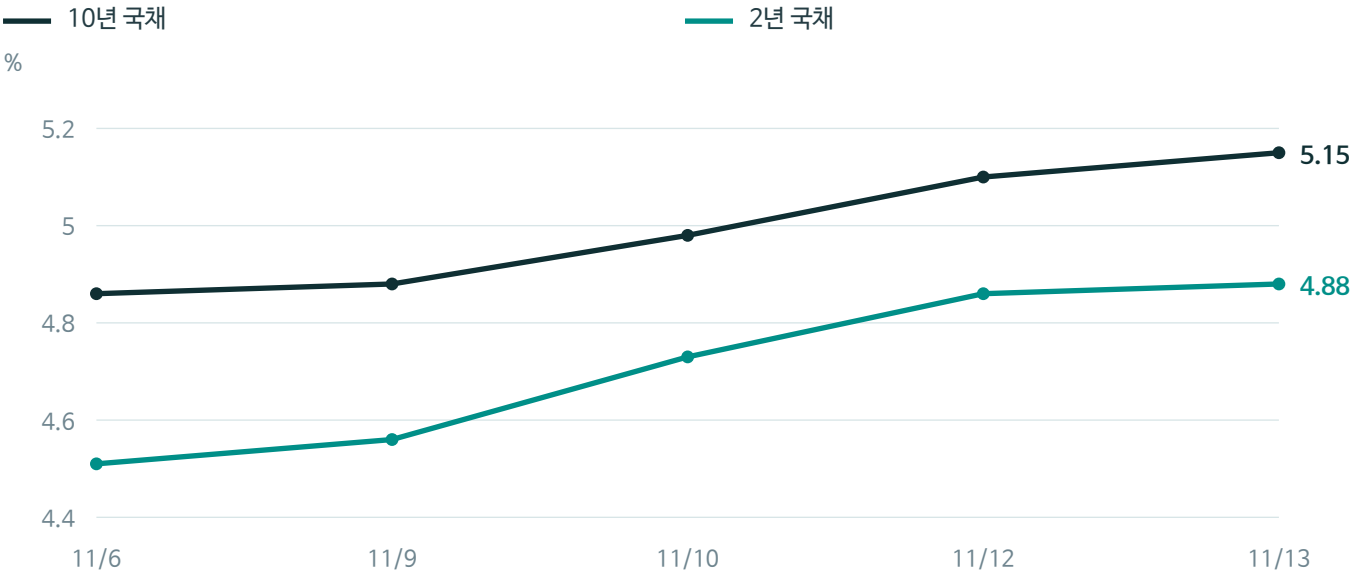
TradeLens 판단

이번 PPI는 완화를 서두르기 어려운 근거를 보탠다. 그러나 6.5% 하나로 인상 횟수·시점·지수 하락폭을 정하는 것은 정책과 실적의 다른 정보를 생략하는 판단이다.

09 / MARKET DISCOUNT RATE

장기금리는 이미 부담이다, PPI의 기여분은 별개다

미 재무부 일별 파 수익률. 하루 변화와 발표 직후의 인과효과를 구분한다.



단위: 연 %, 관측일 순서. 11월 11일은 미국 재향군인의 날로 해당 일별 관측이 없다. 11/10 CPI, 11/13 PPI 발표. [5] [12]

지표	11/12	11/13	하루 변화
2년물	4.86%	4.88%	+2bp
10년물	5.10%	5.15%	+5bp

장기 수익률에는 앞으로의 단기금리 경로와 기간 프리미엄이 함께 반영된다. 물가뿐 아니라 성장·재정·채권 수급과 위험 선호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일별 금리 상승 전부를 PPI 효과로 배분하거나, 같은 날 모든 주가 움직임을 물가 하나로 설명하지 않는다. [13]

차환이 가까운 기업

새 차입의 이자비용이 비교적 빨리 손익과 현금에 반영된다. 만기 분산과 고정·변동금리 비중이 중요하다.

미래 현금 비중이 큰 기업

현재 이익이 유지돼도 먼 미래 현금에 대한 할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매출 성장률만으로는 방어력을 알 수 없다.

10 / PRICING-POWER MODEL

가격 전가가 이익을 지켜도 이익률은 낮아진다

설명용 모형: 매출 100, 변동원가 65, 고정비 20, 영업이익 15. 판매량은 우선 고정한다.

변동원가가 6% 상승하면 추가 비용은 3.90이다. 이는 특정 기업의 원가 상승률을 추정한 것이 아니며, PPI 6.5%를 모든 기업의 원가에 적용한 계산도 아니다. 전가율은 추가 비용 중 판매가격으로 회수하는 비중이다.

추가 비용 전가율	매출	영업이익	이익률
충격 전	100.00	15.00	15.00%
0%	100.00	11.10	11.10%
50%	101.95	13.05	12.80%
100%	103.90	15.00	14.44%

충격 후 변동원가=65×1.06=68.90. 매출=100+3.90×전가율. 영업이익=매출−68.90−20. 단위: 임의 금액단위.

이익률 15%를 유지하려면

필요 매출=(68.90+20)÷0.85=104.59. 비용 3.90을 넘는 약 4.59의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 같은 이익 금액과 같은 이익률은 다르다.

전액 전가 후 물량이 5% 줄면

단가 1.039, 단위원가 0.689, 물량 95, 고정비 20을 적용하면 영업이익은 13.25다. 비용을 전가해도 수요 감소가 이익을 다시 낮춘다.

실제 기업에서는 재계약 시점·리베이트·원재료 헤지·생산성에 따라 전가율이 달라진다. 매출 증가율만 볼 것이 아니라 단위당 기여이익과 물량, 고정비 회수의 조합을 봐야 한다.

모형이 주는 기준

물가가 높을수록 “가격을 올렸다”보다 “물량과 단위당 이익을 함께 지켰다”가 더 강한 경쟁력의 증거다.

11 / EARNINGS × VALUATION

이익 성장과 주가 하락은 동시에 가능하다

설명용 산식: 가격 변화=(1+주당이익 변화) × (1+평가배수 변화)−1. 실제 지수 전망이 아니다.

주당이익 변화	배수 유지	배수 −10%	배수 −20%
−10%	−10%	−19%	−28%
0%	0%	−10%	−20%
+10%	+10%	−1%	−12%
+20%	+20%	+8%	−4%

주당이익이 10% 늘어도 배수가 20% 낮아지면 가격은 12% 하락한다. 배수 20% 하락을 상쇄하려면 주당이익은 25% 늘어야 한다. 이는 기업 실적 개선이 주가의 같은 비율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 이유다.

100의 단일 미래 현금	할인율 8% 현재가치	할인율 9% 현재가치	변화
5년 후	68.06	64.99	−4.50%
10년 후	46.32	42.24	−8.80%
20년 후	21.45	17.84	−16.83%

산식: 100 ÷ (1+r)^n. 현금 규모·시점은 고정, 중간 지급은 없음. 할인율 1%p 상승을 국채금리 1%p 상승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은 명목 매출을 늘리기도 한다. 따라서 실제 평가에서는 현금흐름 증가와 요구수익률 상승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위 두 표는 서로 다른 설명 도구이며, 같은 충격을 중복 반영해 하락률을 추가로 합산하지 않는다.

TradeLens 판단

증시 압박은 이익 감소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이익은 늘어도 더 높은 할인율과 낮아진 성장 신뢰가 평가배수를 낮추면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

12 / WHO ABSORBS THE COST

수혜·피해는 업종명보다 계약과 부채 구조가 가른다

조건부 사업 분석. 특정 회사의 이익 증가나 투자수익을 예측한 표가 아니다.

사업 노출	지킬 수 있는 가치	이익을 약화시키는 조건
원자재·중간재 공급자	판매가격을 조정하고 물량을 유지하는 능력	원료·전력·운송비가 판매가격보다 더 빠르게 상승
운송·물류	요율 재계약·할증료·노선 가동률	유류·임금·차량비 상승, 계약 반영 지연과 물량 둔화
유통·소비재	브랜드·재구매·상품 구성·재고 회전	판촉 확대와 마진 흡수, 고객의 저가품 전환
장기 설비투자 사업	장기 고객 약정·고정금리 조달·단계별 투자	가동 지연·차환·건설비 상승·회수기간 연장

가격 노출의 출발점은 PPI 품목 자료다. 표의 사업 영향은 TradeLens의 조건부 해석이며 실제 회사별 기여액이 아니다. [1] [3]

이익 방어력이 강한 조합

가격 조정권 + 안정적 반복 수요 + 생산성 개선 + 짧은 현금회수기간. 비용 충격이 장기 차입 증가로 번지지 않는 구조다.

이익 방어력이 약한 조합

판매가격 고정 + 변동 투입비 + 높은 재고 + 임박한 차환. 매출을 늘려도 운전자본과 금융비용이 함께 증가할 수 있다.

다음 실적에서 볼 것

평균판매가격과 판매량, 매출총이익률, 재고·채권 회전, 이자비용과 차입 만기를 함께 확인한다. 성장률 하나보다 비용을 누가·언제 부담하는지가 핵심이다.

13 / KOREA TRANSMISSION

한국 기업에는 가격·환율·미국 수요가 함께 작용한다

미국 생산자의 가격 상승을 한국 수출기업의 수혜로 곧바로 연결하지 않는다.

01 **미국 가격** 동종·대체재 가격 > 02 **계약 전가** 단가·납기·할인 > 03 **수요·금융** 고객 투자·차입 > 04 **국내 손익** 원가·환율·현금

전달 경로	유리할 수 있는 조건	불리할 수 있는 조건
수출 판매가격	현지 가격 상승을 수출 단가에 반영, 물량 유지	고객의 비용 절감 압력과 계약가격 고정
달러와 환헤지	외화 매출이 외화 비용보다 크고 미헤지 노출 존재	달러 원재료·부채 부담, 헤지로 환산 이익 제한
미국 설비·소비 수요	확정 프로젝트·교체 수요·고객 자금조달 확보	높은 금리로 신규 주문·내구재 구매 연기
국내 이익·현금	출하 뒤 결제 회수와 재고 효율 유지	판매 증가보다 운전자본·투입원가가 더 빠르게 확대

PPI는 미국 내 생산자의 판매가격 지수여서 한국산 수입품 가격을 직접 나타내지 않는다. 수출 경쟁력을 보려면 제품별 수입가격·계약 통화·환헤지·고객 재고를 추가로 연결해야 한다. 11월 17일 미국 수출입물가 발표는 이를 점검하는 다음 자료다. [14] [15]

국내 독자를 위한 판단

미국 물가 상승의 한국 수혜 여부는 미국 기업의 비용 증가가 아니라 한국 기업이 확보하는 순단가·물량·현금의 변화로 판단해야 한다. 같은 수출업종 안에서도 결과는 달라진다.

14 / OUTLOOK & MONITORING

기본 전망은 높은 할인율과 기업별 차별화다

명시한 조건이 바뀌면 전망을 바꾼다. 임의의 확률·목표지수·매매 시점은 제시하지 않는다.

경로	확인할 조건	증시에 대한 조건부 해석
기본: 압력 지속	기조물가가 높고 수요는 급격히 무너지지 않음	배수 확대는 제약, 가격·현금 방어력에 따라 차별화
상방: 안정과 성장	여러 달의 물가 둔화 + 실질 수요·이익 유지	금리 부담 완화와 이익 방어가 동행하며 회복 기반 확대
하방: 두 겹의 압박	비에너지 가격·기대 상승 + 이익 전망 하향	마진과 평가배수가 동시에 압박받는 조정 위험 확대

이 기본 판단은 물가가 높으니 주식이 반드시 내린다는 예측이 아니다. 생산성 개선과 재계약 가격 조정이 비용을 상쇄하고 현금창출이 유지되면 압박은 줄어든다. 반대로 낮아진 물가가 수요 붕괴에서 비롯되면 금리 하락만으로 이익을 방어하기 어렵다.

예정일 · 미국 현지	확인 자료	판단을 바꾸는 관측
11월 17일	10월 수출입물가	국내 생산자 압력과 수입가격의 동행 여부 [15]
11월 25일	10월 PCE·소득·소비	물가와 실질 구매력·수요의 결합 [7]
12월 10일	11월 CPI	비에너지·서비스 월간 상승률의 지속성 [16]
12월 15일	11월 PPI	총지수·유통마진·기조지수의 동반 둔화 여부 [17]

최종 결론

6.5%의 의미는 단일한 주가 방향이 아니라 완화를 어렵게 하는 가격 압력이다. 지속성·가격 전가력·현금 회수·차환 부담을 함께 볼 때 증시 압박의 강도와 분포가 드러난다.

15 / SOURCE REGISTER · RELEASES & DEFINITIONS

출처 목록

본문 출처번호와 자료명·원문 열기를 누르면 해당 자료로 연결됩니다.

01. 미 노동통계국 | 2026년 10월 생산자물가 발표 원문 열기

2026.11.13 · 공식 통계 · 총지수·특수지수·품목·개정값

02. 미 노동통계국 | 최종수요 PPI 월간 변화 차트·표 원문 열기

2026.11.13 기준 · 통계표 · 2026년 월간 경로·연율 환산 입력

03. 미 노동통계국 | 10월 최종수요 세부 구성 변화 원문 열기

2026.11.13 기준 · 통계표 · 식품·에너지·상품·운송 가격

04. 미 노동통계국 | 도소매 PPI의 마진가격 원문 열기

방법론 · 판매가격과 재취득가격의 차이, 유통서비스 측정

05. 미 노동통계국 | 2026년 10월 소비자물가 발표 원문 열기

2026.11.10 · 공식 통계 · 전월비·주거비·전년비 공표 범위

06. 미 노동통계국 | 10월 CPI 전년비 공표 안내 원문 열기

2026.11.10 · 통계 안내 · 2025년 10월 비교자료 미수집의 영향

07. 미 경제분석국 | 2026년 9월 개인소득·소비 원문 열기

2026.10.29 · 공식 통계 · PCE 물가·실질 소비·실질 가처분소득

08. 미 경제분석국 | PCE 가격·수량 산출 방법 원문 열기

방법론 · 소비자·생산자물가의 PCE 구성항목별 이용

09. 연방준비제도 | 10월 FOMC 정책 성명 원문 열기

2026.10.28 · 정책 결정 · 3.75~4.00% 동결·물가 평가·반대 의견

자료의 시점·정의·적용 범위를 유지했다. 모형은 별도로 표시한 가정에 따른다.

16 / SOURCE REGISTER · ECONOMY & MONITORING

출처 목록

본문 출처번호와 자료명·원문 열기를 누르면 해당 자료로 연결됩니다.

10. 미 노동통계국 | 3분기 생산성·비용 잠정치 원문 열기

2026.11.05 · 공식 통계 · 비농업 기업 생산성·단위노동비용

11. 미 노동통계국 | 2026년 10월 고용보고서 원문 열기

2026.11.06 · 공식 통계 · 비농업 고용·실업률

12. 미 재무부 | 2026년 일별 국채 파 수익률 원문 열기

2026.11.13까지 · 일별 지표 · 2년·10년물, 장중 반응과 구분

13. 뉴욕 연방준비은행 | 국채 기간 프리미엄 원문 열기

방법론 · 예상 단기금리와 기간 프리미엄의 분해

14. 미 노동통계국 | PPI와 CPI의 범위·측정 차이 원문 열기

방법론 · 수입·수출·주거·제3자 지불·유통서비스 차이

15. 미 노동통계국 | 2026년 11월 발표 일정 원문 열기

2026.11.14 기준 · 예정 일정 · 11월 17일 수출입물가

16. 미 노동통계국 | CPI 발표 일정 원문 열기

2026.11.14 기준 · 예정 일정 · 12월 10일 11월 CPI

17. 미 노동통계국 | PPI 발표 일정 원문 열기

2026.11.14 기준 · 예정 일정 · 12월 15일 11월 PPI

자료의 시점·정의·적용 범위를 유지했다. 모형은 별도로 표시한 가정에 따른다.

17 / METHODOLOGY & USE

작성 기준·면책고지·이용 안내

공식 통계·정책 결정·TradeLens 분석·설명용 가정을 구분한다.

항목	적용 기준
시점·대상	2026.11.14. 11월 13일 발표한 10월 PPI 및 그때까지의 공식 통계·정책·국채 자료.
기간·정의	PPI 전월비는 계절조정, 전년비는 비계절조정. 식품·에너지 제외와 유통서비스까지 제외한 지수를 구별한다.
계산·개정	3개월 연율은 공표 월간율의 복리 환산. 개정된 최근 자료를 사용하며, 반올림 오차와 향후 개정 가능성을 유지한다.
자료의 경계	CPI 전년비 미공표값을 추정해 채우지 않는다. 일별 금리 변화는 PPI의 독립적인 인과효과 추정치가 아니다.
설명용 모형	6쪽 유통마진, 11쪽 비용 전가, 12쪽 이익·배수와 할인율 모형은 명시한 가정에 따른다. 실제 기업·지수 전망이 아니다.
판단 범위	제목의 “충격”은 가격·정책·손익 부담의 의미이며 예상치 대비 서프라이즈를 계량한 표현이 아니다. 목표가격·개인별 자문은 다루지 않는다.

면책고지

본 보고서는 시장·산업 및 기업의 경제적 구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매수·매도 의견·시점, 적정가격·목표가격 및 이용자별 투자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록 정보와 분석은 작성일 기준이며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망·가정 및 예시 계산에는 불확실성이 있으며 원금이나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판단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계 법령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트레이드렌즈는 본 보고서 이용에 따른 투자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및 이용 제한

본 보고서의 서술·도표·디자인·편집 및 구성 중 트레이드렌즈가 권리를 보유한 부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개인 열람·보관 외에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편집·번역·재가공하거나 복제·전송·재게시·재배포·판매할 수 없습니다. 유료·무료 제공 및 파일·화면 캡처 등 형태를 불문하며 로고·출처·권리표시를 제거하거나 제3자 명의로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이용과 제3자 자료의 개별 이용허락조건은 그에 따릅니다. 공유는 트레이드렌즈 공식 게시페이지의 원문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